

## 第2次 文芸中興 5 個年計劃立案을 爲한 公開討論會

# 文 化 一 般

金 璟 東

서울대학교 教授

지난 5월 10, 11 兩日에 걸쳐 文化公報部, 韓國文化藝術振興院 主催로 振興院 講堂에서 文芸中興에 關한 公開討論會를 갖았다.

이 討論會에서 發表된 論文中 文化一般, 国学, 民俗芸能, 文化財, 文學, 藝術, 公演藝術, 大衆文化 그 一部만 拔萃하여 紹介코자 한다.

### I. 序

文化一般分野에서는 1979년부터 始作될 第2次 文化中興 5 個年計劃의 基本方向을 檢討 定立하고 財源開發을 包含하는 制度的 基盤造成的 問題와 國際交流의 積極化를 위한 方案을 模索하는 일을 主로 다루었다.

우리나라는 길고 艱難한 歷史를 지니면서 強力한 外勢의 영향 아래서나 獨自의 文化傳統을 지키고 꽃피워 왔다. 그러나 이러한 文化民族으로서의 正體性이 오늘날 만큼 흔들리게 된 때도 歷史上 드물다. 그것은 政治軍事의 占領이나 強要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經濟體系로서 國際的인 相互依存度를 높이게 된 近代化의 國際的 脈絡 때문이다. 특히 交通 通信技術의 急速한 發達로 인하여 全世界는 深刻한 空間概念의 變質을 經驗하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的인 近代化의 力学속에서 모든 나라들은 事實上 자기의 民族文化의 正體性에 대한 새로운 關心이 高潮되고 있거니와 2次大戰 以後에 工業化나 經濟成長을 시작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民族主義의 인 色彩를 띄면서 더욱 活潑하다. 産業革命이 西洋의 産物이기 때문에 이를 導入採用하고 있는 新進工業國들은 自然히 西歐와의 接觸이 深化되고 經濟的 依存度가 또한 높아짐으로 해서 그 文化的 影響도 크게 받게 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經濟新進國들은 文化的 正體性의 危機를 當面하기가 쉽다.

우리나라도 지난 10餘年에 걸쳐 史上 類例가 드문 急激한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過程에서 바로 이와 같은 文化的 正體性의 問題를 直面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은 經濟成長에 汲汲한 나머지 흔히 소홀해지는 쉬운 文化藝術의 振興에 대한 關心이 事實上 低調하였던 것은 否認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輸出 100億달러, 1人當 國民所得 1천달러의 閼門을 通過하여 經濟新進國에서 는 저만치 앞서가는 國民으로 自如하게 되었으니만큼 그 토록 엄청난 業積을 쌓은 國民다운 모습을 띄자면 역시 文化民族으로서 발돋움을 하고도 남을 때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그러한 覺悟의 한 표현이 第1次 文芸中興 5 個年計劃 이라 하겠다. 이제 第1次 계획을 마무리짓는 단계에 들어선 때 다음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2次計劃의 基本方向과 基盤造成策을 생각하며 또 활발한 國際的인 文化交流를 통하여 文化發展을 꾀하는데 寄與하고자 하는 바 이다.

### II. 基本前提

위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이 經濟中進國으로 國際舞台에 나서고 있는 이때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 온 文芸振興의 意識的인 方案을 講究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基本前提를 바탕으로 하여 이에 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文化藝術은 本質的으로 그 자체 經濟成이 있는 것으로 볼수는 없으나 文化藝術이 꽃피려면 現代社會에 서는 적어도 그를 促進시키기 위한 經濟的 바탕이 先行되어야 한다. 人間의 創作活動은 궁극적으로 人生의 意味를 이해하고 自己實現을 이룩하는 表出的인 行爲이다.

그러나 日常的인 衣食住 問題를 염려해야 하는 환경속 에서 뛰어난 창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全國民이 經濟的으로 困窮하던 時代에서 바야흐로 脫皮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야말로 文化藝術의 창작과 文化傳統의 再創造를 위하여 인색하지 않아도 좋을 형편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需要가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어

느 정도 文芸活動 자체가 經濟性을 띠는 시대가 올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國際的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莫大한 支援이 필요하다.

둘째, 같은 論理로 사람이 衣食住의 여유가 없을 때는 生計에 급급한 나머지 文芸鑑賞이란 한갓 사치스러운 活動에 不過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당한 經濟成長을 이룩한 오늘날에 와서는 文芸鑑賞과 文化活動에 대한 需要가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맞서는 文芸創作과 普及, 公演, 発表, 展示 등의 供給面에서의 증가도 따라야 할 것은 自明하다.

셋째, 그러한 量的인 증대는 자칫하면 質的인 低下를 수반하기가 쉽다. 더군다나 電子媒体 또는 기타 大衆傳達媒体의 발달로 文化藝術의 大衆化가 挑戰받게 될 때가 있다. 商業主義까지 걸들리게 되면 文芸의 質은 상당한 試練을 겪을 수 있다. 흔히 文化의 高低를 따지지만, 高等文化라고 반드시 藝術的인 質이나 文化的인 價值가 역시 높은 것은 아니며 大衆文化라고 그것이 꼭 低質의 것이어야 할 까닭도 없다.

네째, 이와 관련하여 經濟成長의 열매를 正當하게 配分하기를 期待 要求하는 社會正義의 觀點에서 볼 때 質이 좋고 價值있는 文化의 惠沢은 골고루 各界各層에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經濟成長과 아울러 社會開發을 통한 福祉社會의 建設을 指向하고 있거니와 그 福祉의 개념 속에는 文化的인 福祉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階層別, 地域別, 世代別, 男女別 기타 갖가지의 区分에 따른 隔差를 解消시키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다섯째, 經濟成長은 國民의 文化需要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精神生活을 貧弱하게 하고 精神健康에 有害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高度成長을 통한 工業社會의 成就에 따라 일어나는 靑少年層과 老年層의 疏外現象이라든가 個人主義的인 性向의 墮落, 퇴폐풍조의 蔓延 등은 사실상 그 자체로서도 문제 제시 되어야 할 争点이지만 또 나아가서는 이로 因하여 國民의 統合이라든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經濟成長, 社會開發 등 國家發展의 阻害要素로 作用할 공산도 크다. 그러므로 文芸中興은 全國民의 均衡된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精巧化시켜 주는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앞날의 國家發展을 위한 새로운 힘도 용솟음 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여섯째로 그러나 가장 核心的인 것은 이 모든 面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文芸振興事業은 우리民族의 文化的인 主体意識을 한층 더 뚜렷이 함으로써 世界文化의 發展에까지 貢獻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文化傳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바탕을 두고 自主的이며 獨創的인 文化藝術의 끊임없는 再創造를 거쳐서만이 可能하다.

흔히 傳統이다 傳統文化다 固有文化다 하는 말들을 함부로 쓰지만 따지고 보면 순수한 뜻의 固有文化란 있을 수

없다. 한 文化單位인 社會가 傳統的으로 傳承해 온 바의 文化遺産은 항상 남의 것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우리나라로 適應 採用하는 가운데 創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固有文化이고 그 속에는 傳統的인 要素와 새로운 要素가 加味되어 있는 법이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文化傳統이며 앞으로의 文化傳統은 또 우리 世代로 부터 끝없이 再創造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물론 물려 받은 傳統的인 文化 가운데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 발돋움하는 우리들에게 有用한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盲目的인 復古主義나 國粹主義의 自己民族中心思想은 禁物이다.

自主的인 文化傳統의 定立開發은 바로 이와 같은 傳統的인 것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하여 그것과 外來의 것의 辨證的인 止揚을 거쳐 새로이 창조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政治權力의 손길도 뻗이지 않고 그 正統性을 지켜 나가는 데에서 빛이 나게 된다. 우리가 文芸振興策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北韓文化의 非正統性을 批判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서 世界에 우리의 文化的인 光彩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도 이러한 文化正統과 自主文化의 重要性을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을 것이다.

### III. 計劃의 目標과 方向

#### 1. 基 調

무엇보다도 第2次計劃의 기본목적은 第1次計劃의 기초에서 강조된 바 우리의 傳統속에서 값있고 소중한 文化遺産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自主的인 民族文化를 創造함으로써 새로운 文化傳統을 樹立하고 文化中興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基盤造成에 注力해 왔거니와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단계로 나아가 文化創造와 文化傳播를 적극 지원하는 일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 2. 重點目標

앞에서 열거한 基本前提와 基本目的을 달성하려 함에 있어서 좀더 특징적인 水準에서 重點을 두어 추구하고자 하는 目標은 대충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로 經濟的인 先進國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文化的으로도 先進國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가 물려받은 文化遺産과 世界文化藝術을 調和있게 吸收 再創造함으로써 새로운 自主的인 民族文化를 일으키는 일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둘째로 經濟成長과 더불어 社會開發을 추진하는 이때 文化的인 惠沢을 階層, 地域, 世代, 男女別의 区分을 망라하여 골고루 享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全國民이 名實共히 文化民族으로서의 均衡있는 生活을 누릴 수 있도록 文化福祉社會를 이룩하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계로 우리 문화의 發展은 世界의 여러 문화들을 選別 受容하되 이를 積極的인 자세로 받아 들이고 그것과 우리의 傳統的인 文化遺産을 한데 어울려 새로이 창조함으로써 더욱 꽃필 수 있다.

한편 우리가 불러 받은 文化傳統과 또 새로이 창조하는 文化藝術을 世界에 널리 알림으로써 文化民族다운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이 세계문화의 발전에 경제적, 기술적인 공헌을 하려는 것보다는 더 값지고 主体的인 기여는 바로 우리 문화의 적극적인 전달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계획기간 중에는 文化的 國際交流를 強化하는데에 重點的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네째로 民族의 念願인 統一을 추구함에 있어서 南北의 文化的인 괴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北韓文化의 虛構성과 政治的 剛一性에 대한 研究를 통하여 民族의 文化正統性을 재확인하는 일에도 注力할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통일과업에 있어서의 主導力을 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文芸振興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經濟成長과 文化發展의 相互關連性을 重視할 뿐 아니라 制度的으로도 各 政府單位는 물론 政府와 民間의 協力體制를 強化하고 統一된 文化政策을 추진할 수 있는 機構의 模索도 필요하다.

#### IV. 基盤造成

위의 基本目標들을 達成하기 爲하여 우선 그 基盤造成의 方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基盤造成의 基本方向을 몇가지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人間資源의 問題

무엇보다도 文芸活動이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文芸振興도 사람이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趨勢로 보아 人間資源의 問題를 이와 같은 두가지 側面에서 檢討하고 그 改善策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 가. 文芸人을 爲한 誘因體系

이미 文芸活動에 對한 各種 經濟的 支援은 推進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생각해야 할 것은 著作權, 印稅 같은 經濟的인 유인체계의 하층개선은 말할것도 없거나와 (특히 藝術分野의 境遇), 이들의 質的向上과 文芸活動에 對한 獻身沒入, 士氣昂揚, 自負心과 矜持의 涵養等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새로운 誘因體系의 模索이 必要하다.

그 일례로 유럽에서와 같이 一定한 質的 位階에 의한 榮譽의 賦與, 水準以上의 文芸人에 對한 年金制度의 實施等 老后의 生活 對策과 保障策의 마련, 特殊한 人間文化財의 特別 保護措置, 人間文化財候補制 같은것을 通하여 榮譽의 賦與等을 들 수 있겠다.

이런 制度는 各 個人의 文芸活動에서의 자극만 되는 것

이 아니라 새로운 世代에게 安心하고 一定한 職位를 물려 줄수 있게 하며 文芸界의 신진대사를 또한 促進할수 있다.

##### 나. 새로운 人的資源의 養成

한편 새로운 人力을 養成하는 일도 時急하다. 特別 傳統的 文化遺産의 발굴, 전승, 계발에 있어서는 古典번역사, 各種 人間文化財의 후계자 등의 体系的인 訓練計劃의 樹立이 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各種 장학制度, 교과과정의 體系化, 教育方法의 合理化等도 必要하지만 또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은 社會的 誘因도 必要할 것이다.

##### 다. 文芸關係 人的資源의 養成과 再訓練

아울러 文芸關係 專門家와 文芸專擔 行政要員, 立法過程에 參與하는 法務官 등의 政府要員의 積極的인 養成과 訓練도 必要할 것이다. 이는 特殊한 文芸專擔 職責을 專門化시키는 일과도 並行되어야 한다.

國立劇場, 音樂會館, 美術館, 博物館, 圖書館 其他 各 文化關係部처의 行政官 등의 專門職化를 꾀한다. 必要에 따라서는 別定職制나 身分保障制를 採択하여 永久性, 持續性, 能率性을 살리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大衆媒體를 通한 文化전파의 기능을 質的으로 向上시키기 爲하여 TV, 라디오 其他 언론기관의 文芸專門家 또는 製作者, 企劃者, 作家 등의 訓練과 아울러 이들의 誘因을 위한 政策的 配慮도 必要하다.

나아가서는 傳統文化의 教育, 普及을 爲하여 各級學校의 教師 가운데에서 特別 教育訓練을 거쳐 이를 專擔하도록 권장할 必要가 있다. 그뿐 아니라 海外旅行者들의 境遇에도 特別 教育課程을 設置하여 傳統文化와 韓國文化에 對한 基礎的인 理解를 가지고 外國에 나감으로써 文化外交의 一翼을 担当케 하는일도 必要하다.

끝으로 文芸批評家의 境遇에도 分野마다 專門的인 教育을 가지고 이에 임할수 있는 教育制度和 訓練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制度的인 調整

文芸中興 基盤造成을 爲해서 人的 資源의 問題와도 關連되는 것으로 特別 從來의 經驗에 비추어 相當히 本格的인 變革을 要하는 分野가 바로 이 制度的인 調整의 問題이다. 이 問題는 法的인 절차와도 關係가 깊은 동시에 政府組織上의 問題點과도 直結되는 것이므로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런 問題가 解決되지 않고봐서 效果的인 文芸振興策의 수행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은 더 강조할래야 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다.

##### 가. 計劃樹立過程에서의 調整

어차피 文芸振興 事業도 財政的인 뒷받침을 必要로 한다면 적어도 이점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 問題가 考慮되어야 한다. 첫째는 文예진흥 計劃期間을 經濟計劃期間과 맞추어 再調整하는 일이다. 文예진흥 事業의 主要部分은

經濟成長의 社會文化的 結果 내지 影響을 考慮하여 이를 극복하는 일인 同時에 實際로 經濟成長政策이 推進되는 동안에 갖가지 文化的인 유산들의 處理가 非合理的 으로 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고 合理的이고 体系的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經濟計劃과 同時에 그 結果를 豫備的으로 탐사하고 檢討하는 過程에서 文芸中興計劃도 樹立하는 것이 긴요하다.

둘째는 文芸振興事業이란 단시일 안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것이다. 具體的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1年 單位로 結果를 보고 다음것으로 연결 또는 종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境遇에는 中長期的인 性格을 띄고 推進하는 것이 實効를 거둘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1年 單位의 政府豫算體系는 相當한 制約을 內包하고 있다. 이는 앞서 指摘한 文芸專門 家의 養成, 保障制度의 마련과 같이 文芸活動의 連續性和 長期性을 위해 반드시 調整될 必要가 있다.

事實 文芸振興事業이 지나치게 政府豫算과 直結되어 있다는 점 자체도 再檢討할만한 것이다. 이는 곧 언급하려고 하는 政府 各部處問의 分業과도 關係가 있고 地域間 資源 배정 問題와도 直結되는 것이므로 果敢한 조치를 시급히 要하는 項目이다.

나. 政府組織體 單位間의 業務調整과 協力體制의 確立  
지금까지의 文芸振興計劃 推進에 있어서 支障을 招來해 온 制度的인 問題 가운데 가장 深刻한 것의 하나는 文芸業務의 分化現象에서 招來되는 非能率이라고 할 수 있다. 文芸事業에 해당하는 業務가 적어도 文公부와 文敎부로 갈라져 있을뿐 아니라 海外問題에 가서는 外務부와도 關聯되고 또 國內 各種 人口集團(가령 靑少年, 老年層, 女性等)에 대해서는 保社부와도 關聯이 되며, 그밖에도 建築關係, 道路關係,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등에 있어서도 各種 機關들이 直接 間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問題의 해결을 長期的으로 보면 文芸振興關係 業務를 管掌하는 統合機構의 設置가 必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段階的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라도 各機關의 分業을 調整하여 有機的인 關係를 이룩하고 일의 効率을 거둘 수 있는 調整委員會라든가 그와 類似한 機構가 時急히 要請된다.

이 問題는 計劃樹立, 豫算編成의 段階에서부터 計劃施行, 評價에 이르는 모든 過程에서 항상 대두되는 것이다. 特히 現在만 해도 地方自治團體와의 關係에서 業務遂行을 위해 利用할 수 있는 機構는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文芸事業의 部門別 分業의 調整統合은 勿論 地域間 人間集團別 여러시책의 計劃樹立, 施行을 統合調整하는 어떤 形態의 全體的 企劃調整機能을 專担할 機構가 必要하다.

이는 계속 研究를 要하는 問題이면서도 당장에 不可欠한 것으로 판단된다.

現存 文芸振興委員會의 機能을 活性化 시키든가 그에 対応할 만한 委員會나 政府機構의 緊要性을 다시 強調하

는 바이다.

### 3. 財源調達과 確保의 問題

여태까지 文芸振興事業을 위한 財源의 調達은 一部 政府豫算과 또 受惠者負担原則에 의거한 各種 觀覽料 等に 依存하여 왔다.

그 동안 法的 節次를 밟아 資産家나 企業이 獻金하는 境遇에 稅制上的 惠沢을 賦與할 길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方法으로 資源을 調達할 뿐 아니라 長期的인 財源의 確保까지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境遇에 強調되지 않으면 안될 점이 두어가지 있다.

첫째로 資産家나 企業法人체가 獻金, 寄附하는 행위는 단순히 稅制中的 惠沢의 追求나 慈善事業인양 생각하는 자세에서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國民 모두가 合心하여 이룩한 經濟成長의 열매로 얻은 富의 자그마한 部分이나마 社會에 되돌려준다는 義務行爲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行動을 통하여 國家的인 文化發展에 寄與할 뿐 아니라 앞으로 繼續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씨를 뿌린다는 積極的인 자세에서 우리나라와야 한다.

한편 이러한 行爲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社會的인 報償이 따르도록 配慮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그것이 社會福祉를 위한 義務行爲라 해도 寬大한 寄與일 境遇에는 그에 걸맞은 榮譽나 社會的反應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誘因으로서나 反對給付로서의 効果가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特殊한 資源을 어떤 式으로 活用하는가에 따라 이 점도 함께 考慮될 수 있다. 勿論 現在로서는 당장에 拡充해야할 各種 施設이나 誘因의 財源으로 使用될 수도 있다. 이런 境遇에는 獻納하는 個人이나 法人體에게 特定한 榮譽 또는 特典을 부여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獻納規模의 大小에 따라 이것이 지나치게 차별을 나타내서는 困難하고, 또 한편으로는 長期的인 事業을 위한 基金의 마련을 위하여 大規模 資源의 公納을 利用할 必要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關聯하여 有數한 大衆傳達媒體를 運營하는 各 企業體에서도 이 事業이 利潤과 연결됨으로써 희생되는 文芸發展을 보상한다는 뜻에서 그 純益의 一部를 文芸振興事業에 割愛하도록 중용, 권장 또는 境遇에 따라 行政的으로 要請하는 方法도 있다. 가령 웬만한 방송시설을 갖춘 會社라면 專屬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劇團 발레團, 오페라團 展示場 등을 갖추고 이를 積極 支援 育成하는 方案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事業上 政治的인 地方自治制가 存在하지 않는 實情에서 各 地方의 文芸振興을 위한 豫算이나 財源의 確保는 매우 시급하다. 中央과 地方의 統合의 연계는 勿論 緊要하지만 이것이 비단 政府水準에서만 머물것이 아니고 또 各 地方에서는 地域別로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 資源調達과 確保에 힘써야 할 것이다.

### 4. 法規上的 整備

위에서 列挙한 몇가지 基盤造成 指針에는 모두 直接 間

接的으로 法規上의 再調整 또는 整備가 要求된다. 이와 구체적인 事例은 省略하겠지만 人的 資源의 養成訓練保障 行政要員의 確保와 身分保障, 教育体制上의 強化, 機構의 調整, 財源의 調達과 確保等 모든 面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고 積極 支援해 주는데 조금도 支障이 없도록 法制上의 調整, 整備가 꼭 必要하다.

그리고 이 問題는 다음에 言及하고자 하는 文化的 國際交流에도 該當되며 구체적인 分野마다 그러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에서 指摘해 둔다.

### 5. 文芸成果의 共同享有를 위한 조치

基盤造成에서 끝으로 言及할 것은 文芸振興事業을 위한 各種 物理的인 施設의 擴充을 들 수 있다. 各種 劇場, 美術館, 博物館, 圖書館, 音樂會館, 展示場 等 文芸活動의 發表 또는 傳播機關을 뜻한다. 이런 施設의 擴充이 時急하다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겠지만, 이것이 各界各層의 國民에게 均衡있게 共同으로 享有되어야 한다는 데에 焦點을 둘 必要가 있다.

우선 地域的인 分布의 均衡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經濟的인 基盤 뿐 아니라 特別히 文芸分野에서 地域的 差異가 서울과 地方, 都市와 農村등에서 심각하였다 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할 必要가 있다.

다음으로는 年令層에 따라 靑少年의 정서 순화의 問題는 대단히 시급하여 老年層의 福祉를 위해서나 婦女子의 여가선용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退顏性向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널리 향시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과 文芸發表가 있어야 할 것은 더 강조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境遇에 따라서 주어진 시설이 一定期間만 活用되고 長期間 遊休하지 않으면 아니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막고 항상 有用하게 年中開館할 수 있는 方法으로 地方公演이나 展示를 義務화한다든가 企業이나 學校가 一定期間 貸切하여 社員과 學生들이 계속 文芸生活를 영위할 수 있도록 義務化 내지 권장하는 方途가 있다.

그리고 運營의 妙를 살려 國立劇場 같은 것이 未分化 상태로 각분야의 단체가 混用할 것이 아니라 技能的으로 專門化함으로써 모든 施設의 活性化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2次 計劃期間 中 이와 같은 部面의 기반조성은 대충자리가 잡혀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V. 國際的인 文化交流

궁극적으로 우리 文化의 自主的인 發展은 國際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文化民族으로서의 위치와 직결된다. 그리고 獨創의 文芸中興은 또 한편으로 發展하는 世界文化의 積極的인 攝取와 再創造에서 일어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世界文化의 發展에 重要한 몫을 차지한다는 진취적인 자세가 必要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2

次 計劃期間 中에는 최소한도 우리 文化의 海外 소개라는 立場에서 반성할 바를 돌이켜보고 이의 積極的 改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側面에서 이 問題를 다루어야 할 줄 안다.

첫째로, 韓國文化의 海外소개를 合理化, 體系化, 長期化할 必要가 있다. 이 가운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考慮事項들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선 韓國文化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有用하고 効果的이며 價值있는지를 判가름하여야 한다. 傳統的인 文化遺産이라고 아무거나 내다 놓는다거나 文芸創作物이라고 반드시 내어 놓을 만한 것인지를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여 면밀히 檢討 평가하고 內實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소개하는 方法도 번역이나 기타 창작품의 소개에 있어 반드시 專門的이고 體系的인 解說를 수반할 것이 必要하고 또 可能한대로 現地의 言語로 이를 풀이하고 現地의 매체를 통하여 廣告하도록 現地의 知性人을 최대한 利用할 것이다. 이 境遇 되도록 政府의 刊行物을 皮함으로써 不必要한 固定觀念이나 오해를 풀 수 있고 전문가 學者들의 입과 글을 최대한 利用할 것이 必要하다.

한편 國內의 人力 가운데서도 海外文化소개를 專担하는 전문가도 양성할 必要가 생긴다.

그리고 이미 海外에 진열된 或은 出版소개된 文芸物을 감정하고 재평가해서 개선, 대치, 수정은 물론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韓國文化의 海外소개를 積極化하기 위하여 外國의 文化關係 言論人들을 체계적으로 초치하는 것도 必要하다.

그뿐 아니라 이미 앞에서 言及한 바이지만 海外에 旅行하는 各界各層의 韓國人들에게도 기초적인 韓國文芸, 傳統文化의 유산 등에 관한 교육을 安保教育처럼 의무화 시켜서 民間文化交流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둘째로 海外文化의 受容面에서 韓國이 主權하는 音樂會, 學會, 展示會 등을 國際化하는 方案을 講究할 것이다. 적어도 아시아를 中心으로 하는 各種 學會 文化세미나 등은 韓國에서 정기적으로 主權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國際文化交流의 政治的 行政的 側面에서 文化協定의 多邊化와 또 그 活性化를 促求하되 可能하면 共產圈을 포함하여 積極的인 자세로 이에 임할 것이 必要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國內에서 文化關係 各 政府單位의 參與와 協力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단 文化協定에 국한되지 않고 활발한 文化交流를 推進하기 爲해서 國際文化交流을 長期的인 眼目에서 企圖하고 調整하는 統合機構도 확보할 必要가 있다.

# 文芸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계례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芸術의 文化的 創意力이다. 芸術이 創意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証明한다. 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고 陳腐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芸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体性에 뿌리 박게 한다. 하며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芸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芸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芸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芸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 美 術

李 逸

弘益大學校美大教授

### 1. 序

第2次 文芸中興 5個年 計劃 立案에 즈음하여 美術分野는 그 基本 方向을 다음 4個項目으로 집약했다.

1. 美術館 및 常設展示場의 問題
2. 美術創作 지원의 問題
3. 美術 國際 교류의 問題
4. 其他

그러나 이 4個項目은 각기 복합적인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項目 相互間에도 密接하고 有機的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두는 바이다.

이하 각 項目別로 問題를 제기해 나가겠다.

### II. 美術館 및 常設展示場의 問題

美術館의 問題는 現存하는 國立現代美術館을 包含하여 이미 건립되었거나 앞으로 건립되어야 할 各 市立美術館의 問題와도 關聯되며 또 常設展示場의 境遇도 서울의 美術會館(文芸振興院 附設)을 包含하여 이 역시 美術館의 境遇에 準한다.

#### 1. 國立現代美術館

가장 基本的인 源泉的인 問題로서 國立現代美術館에 제기되는 것이 現代美術館으로서의 名실상부한 機能의 補充이다. 이 問題는 다시 다음의 5個 項目으로 나뉘어진다.

#### ① 編制 改編

#### ② 美術館 專門要員의 양성

#### ③ 附帶施設의 擴張

#### ④ 國內外的 美術情報센터의 設立

#### ⑤ 收藏作品의 確保

가. 編制 改編

오늘날까지 國立現代美術館의 編制는 완전히 行政的 次元의 것으로 머물러 있다. 館長職은 文公部의 局長級의 行政職이며 개관(6年)이래 오늘까지 여러명의 館長이 바뀌었다. 따라서 美術館 運營의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專門職이 아니기 때문에 美術館의 機能을 充足하게 살리지 못했다. 外國의 例를 들 것도 없이 國內의 境遇를 들더라도 國立中央博物館은 館長으로 부터 學芸官에 이르기까지 專門家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現代美術館에는 學芸官 제도조차 없으며, 앞으로 이 學芸官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館長職도 적어도 次官級의 專門職으로 하는 機構的인 改編이 요망된다.

#### 나. 美術館 專門要員의 양성

美術館 機構의 專門職化와 이에 따르는 美術館 機能의 專門化에 따라 美術館 運營의 專門要員 양성이 시급하다. 이 專門要員은 美術館의 行政的 管理를 배놓고 다음 두가지 카테고리로 大別할 수 있다.

① 現代美術館의 所管 對象이 되는 美術分野 전반에 걸친 專門家.

② 收藏作品的 保存·管理를 전담하는 專門家가 그것이다. 後者의 境遇는 作品의 補修, 作品 管理를 위한 湿度·溫度 調整等에 對한 專門家가 包含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長期的인 海外 研修課程이 必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 附帶施設의 擴張

美術館은 단순히 作品展示만으로 그 機能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대중과 美術의 만남의 媒介體로서 또 美術에 對한 理解를 높이고 그것을 生活化시키는 方向으로 美術館의 教育的 機能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같은 機能을 強化하기 위해서 美術館 內에 視聽覺室의 設置는 勿論 近代·現代美術에 對한 정기적인 短期강좌 또는 세미나를 기획하여 美術과 對話의 기회를 增加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 라. 國內外的 美術情報센터의 設立

이 問題는 앞서의 美術館의 教育的 機能의 問題와 直接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다 積極的으로는 海外 美術과의 情報 및 資料 교환을 위한 독립된 情報센터의 設置는 美術創作 蓬토의 조성과 學術的인 次元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作品슬라이드를 包含한 일종의 「美術라이브러리」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巴里的 蓬피두文化센터의 境遇. 이 問題는 서울의 文化會館 新축과 關聯해서 檢討할 여지가 있다)

#### 마. 收藏作品的 確保

了算上의 問題는 차지고라도 國立現代美術館의 공간의 권력은 미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그 收藏作品들은 國內 作家의 것으로 머물렀다. 國內 作家의 購買에 있어 一次的으로 問題가 되는 것이 國立現代美術館 專屬의 「國家購買常設委員會」 設置이다. 여기에서 現代美術館 收藏 作品 選定의 方向과 方法이 論議될 것이며 現在의 時点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國內의 大家·重鎮作家들의 作品과 併行하여 作故作家와 有能한 젊은 作家의 作品을 아울러 購買할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종전에 있어서처럼 國內 作品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作品 購買의 범위를 넓혀 海外의 대조적인 現代作家의 作品을 年次的으로 購入, 그것을 常設 전시해야 할 것이다. 國內外的 現代作家 作品의 均衡잡힌 收藏과 그 常設 展示는 우리나라 美術 蓬토의 振作은 勿論 教育的 意義도 크다고 생각된다.

이 收藏作品 確保에는 많은 了算이 투입되어야 함은 勿論이나 또 한편으로는 實業人을 包含한 個人 컬렉션의 國家 기증의 方法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例는 外國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藝術作品이 어느 特定人의 私有物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도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市立現代美術館건립 및 美術會館 運營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人口 700萬의 大首都 서울에 독자적인 市立美術館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虛點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文芸振興院 부설 美術會館이 서울에만 하나가 運營되고 있다는 사실도 재고해 볼 일로 생각된다.

### 가. 現代(또는 近代) 美術館 建立

現代美術館은 그 性格上 他都市에 간혹 있는 博物館과 는 다르며 단독 現代美術館 建立이 여의치 않을 境遇에는 기존 博物館에 近代 또는 現代美術 作品의 常設 展示室을 附設하는 것도 한 方法일 수 있다.

특히 서울의 境遇 市立現代美術館의 建立은 市 자체의 收藏 作品을 確保·展示하는데 意義가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서울을 國際的 美術 교류의 한 中心地로 각광을 받게 할 수 있다는 点에서도 큰 意義를 지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베니스·상파울로·巴里·東京 등의 都市에서 주최하는 國際展 형식의 定期展을 서울市의 독자적인 行事로서 마련하여 서울市를 명실공히 國際 수준의 文化都市의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또 이와 아울러 現存하는 國立現代美術館의 機能을 보완하는 구실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나. 美術會館 運營

본래 美術會館은 美術 創作 振興策의 一環으로 建立이 된것이나 展示場의 廉價 貸与라는 방식은 지극히 소극적인 創作 支援 方向으로 생각되며 展示室의 廉價 貸与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 바람직하나, 보다 積極的인 創作 蓬토 조성을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① 美術會館의 독자적 企劃展과 필요에 따라서는 그 企劃展의 長期 展示 및 地方都市에 의 巡廻展

② 一般 美術 애호가의 質의 수준향상과 美術의 生活化를 위한 教育的 目的의 일련의 워크 샵 시스템의 活用, 또 필요에 따른 公開 세미나, 特別 講演會의 기획.

③ 各 主要都市에 의 美術會館 建立과 정기적인 中央 地方都市 間의 作品展 교류.

④ 이에 따르는 美術 活動의 中央, 集權의 경향의 止揚 및 地域文化의 固有性 창달. 郷土 美術의 發展을 위해서는 그 地方 出身의 대표적인 作品을 各 美術會館에 常設 展示될 수 있는 展示室이 確保되어야 한다.

## Ⅲ. 美術創作 支援의 問題

지난 第1次 文芸中興 5個年計劃에 있어서의 問題點은 그 「支援」에 對한 概念 設定과 그 方法論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해서 創作 支援이 經濟的 支援으로 그쳤다는 말이다. 創作 支援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問題는 作品 購買라든가 記錄畫 제작청탁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方法은 그 혜택이 特定作家에게 쏠리는 등 많은 副作用을 초래했다.) 진정한 創作 蓬토의 조성과 画壇 秩序의 正常化라고 하는 与件의 定立에 있다고 생각된다.

創作 의욕의 고취와 화단의 활기 찬 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의 몇가지 方案이 고려될 수 있겠다.

① 間接的인 方法으로는 美術用器·재료의 免稅 平均 70%에 달하는 이 用器의 免稅는 間接的이기는 하나 作家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② 보다 積極的인 意義를 지니는 것으로는 作家로 하여금 나날이 現代化해 가는 生活 공간에 作家가 參與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다. 美術의 生活化와도 密接하게 關係되는 이 問題는 어떤 法的 規制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都市生活 環境을 하나의 美的 共同體로 인식하는 새로운 美意識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③ 画壇 構造의 측면에서 볼 때 國展中心 시스템으로부터의 과감한 脫皮가 시급하게 요망되며 건전한 民展의 육성과 有能한 새로운 世代의 등장을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④ 끝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出版物을 통한 創作 支援의 問題는 美術分野에 한해서는 그다지 큰 奏効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美術專門誌의 육성은 크게 바람직한 일이나, 文學誌와는 달리 美術誌의 境遇는 대개의 境遇 作家가 雜誌에 參與하지 않는다. 評論家 中心의 美術誌이고 보면, 支援의 혜택은 作家와 무관한 뿐더러 혜택을 받을 當事者인 評論家들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美術專門誌에 처한 支援은 勿論 절실하게 요망되는 사실이기는 하나 이와 함께 近代·現代 美術의 資料를 專門的으로 수집·정리하는 美術研究所의 建立과 이미 建立된 研究所에 대한 집중적인 支援이 시급한 과제이다.

#### IV. 美術 國際교류의 問題

이 問題는 作品上의 교류와 人的 교류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다루어질 수 있겠다. 또 이 問題는 人的 교류를 包含하여 우리나라 美術의 海外 진출과 海外 美術의 우리나라 導入이라는 問題를 포괄한다.

##### 1. 作品上의 교류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國際展에 참가, 적지않은 成果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國際展은 실상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중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상파울로 비엔나레, 巴里비엔나레, 카뉴國際繪畫祭 印度트리엔나레, 東京版畫비엔나레 등) 그러나 앞으로의 宿題는 이 밖의 권위 있는 國際展에 참가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展覽회를 들자면 베니스 비엔나레

와 版畫國際展으로서 가장 傳統이 있는 유고슬라비아의 류부리아나版畫展이다. 특히 後者의 境遇는 東歐圈과의 文化·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서 앞으로의 主要관심사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海外美術의 國內 유치 問題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國際的 규모의 展覽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先例는 이미 있었으나 한두차례에 끝났다. 國際展의 주최·기획은 무엇보다 長期的이고 지속적인 展望에 입각해야 한다. 一方的인 海外展 참가에 그치지 않는 본격적인 國際 交流의 한 마당으로서의 韓國, 또 서울이기 위해서는 보다 積極的인 國際美術에의 參與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定期的인 國際展 개최와 아울러 海外에서 개최된 각종 主要 國際展의 韓國 유치도 重要的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가까운 예로는 巴里비엔나레 10周年記念展이 유럽 주요都市를 순회한 후 日本에까지 왔다가 서울에까지는 들지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 2. 人的 교류

우리나라 作家의 海外展 참가의 境遇 그것이 公的인 것일 境遇 出品 作家는 勿論 이에 關한 評論家는 現地에 참가시켜야 한다. 특히 評論家의 境遇 각종의 情報 교환과 現地 시찰을 위해서 海外 여행은 必須의 것으로 생각되며 또 각종의 國際會議 참가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점 韓國의 AICA 入會에 처한 當局의 태도는 問題가 된다)

이와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海外의 저명한 美術人의 國內 초청이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 역시 作家에 限한 것이 아니라 저명한 美術評論家가 包含되어야 하는 것은 勿論이다.

#### V. 其他

以上에서 구체적인 몇몇 方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되나 勿論 그것이 文芸中興 政策에 처한 提案의 전부일 수는 없다. 하나의 問題는 새끼를 치면서, 또 다른 무수한 問題를 낳는다. 또 그 問題들이 단순한 法的 規制에 의해서라든가 行政的 次元에서 일률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는데 또 다른 問題가 개입된다. 創作은 가장 자유스러운 人間 행위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그 自由와 行政的인 次元에서의 美術에 처한 너그러운 理解와의 均衡, 이것이 앞으로의 美術 行政 立案의 基調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전체 美術人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된다.